

논문 20

청소년의 진로 의식 및 진로 경로 분석

김 병 숙*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필요성

우리나라가 청소년의 진로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한지 20년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이 분야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도 답보적인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진로의 영역은 청소년과 직업으로 크게 양분되지만, 이 분야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영역에 전문가들이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두 영역의 전문가들은 일방적 신호로 일관되어 청소년에게 제공할 진로의 가이드라인조차 다양하고 복잡하여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이제까지 답보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진로를 선택하거나 진로경로(career path)를 추구할 때에 그들을 좀 더 현명하게 이끄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의 진로 의식과 진로 경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결과에 기반을 두고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즈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나라 진로영역의 난제를 풀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본 패널은 청소년과 청소년의 진로와 연관되고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 즉 학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 중 중학생, 고등학생(일반계, 실업계) 등의 진로 의식과 진로 경로를 비교분석을 한다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학생, 고등학생(일반계, 실업계) 등의 집단별 비교를 통하여 진로 의식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직업학과 교수

의 흐름, 진로경로, 그리고 진로지원 시스템의 평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의식과 진로경로를 비교·제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나. 목적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중학생, 일반계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등의 진로의식을 비교한다.

둘째, 중학생, 일반계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등의 진로경로를 비교한다.

셋째, 중학생, 일반계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등의 진로지원시스템의 만족도를 비교한다.

넷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의식과 진로경로를 제시한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은 KEEP의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시한 KEEP의 연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KEEP의 연구대상의 표집방법은 전국을 지역별로 층화(stratification)표집하였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유형별로 층화표집하였다. 2단계에서 지역별 학생수 비중에 따라(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유형별 학생수 비중에 따라) 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학급 및 학생을 추출하는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였다.

표본들은 『2003년 교육통계조사』의 (전수)조사대상 중학교 2,903개 학교 중 제주도 42개, 도서벽지 166개, 2학년이 30명 이하인 446개를 제외한 시읍면지역의 2,249개 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748개 학교 중 제주도 12개, 도서벽지 31개, 2학년이 30명 이하인 76개를 제외한 시읍면지역의 631개 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1,297개 학교 중 제주도 17개, 도서벽지 38개, 2학년이 30명 이하인 75개를 제외한 시읍면지역의 1,167개 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중 종합 고등학교 보통과가 있는 200개 학교 중 도서벽지 24개, 2학년이 30명 이하인 48개 학교를 제외한 시읍면지역의 128개 학교를 합한 1,295개 학교가 표본틀(sample frame)로 하였다. 2003학년도에 2학년인 학생은 2004학년도에 3학년이 되며, 학생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31명 이상의 2학년이 있는 학교를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각 학급당 학생 수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1차로 선정된 각 학교에서 4개의 학급을 각 학교의 학급수에 따라 표본학급번호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단, 학급수가 4개 이하인 경우 모든 학급이 선정).

학급수는 중학교가 1~21개, 실업계 고등학교가 1~23개, 일반계 고등학교가 1~20개(종합고 보통과의 경우 1~12개)이므로 표본학급번호는 5~23개의 학급수에 대하여 각각 무작위 추출하여 작성하였다. 선정된 학급에서 계통추출법(systematic sampling)으로 5명의 학

생을 선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KEEP의 자료에서 중학교 학생,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등 각 2,000명씩 총 6,000명에 대한 조사 문항 중에서 진로의식과 진로경로관련 문항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문항은 <표 I-1>과 같다. KEEP의 설문지 내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간한 『2004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1차년도 설문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I-1> 본 논문에서 분석한 KEEP의 문항

구분	중학생	인문계고등학생	실업계고등학생
진로의식	27-4, 33, 33-4, 34, 51, 53, 53	1, 3, 36, 36-4, 37, 54, 55	1, 36, 36-4, 36-6, 37, 54, 55
진로경로	41, 41-1, 44, 45, 46	41-1, 43, 46, 47, 48,	36.3-1, 41-1, 42, 43-1, 46, 47
진로지원시스템	42	44	44

본 논문에서는 SPSSWIN10.0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 t검증, ANOVA검증을 실시하였다. 한편, 본 논문은 KEEP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청소년의 진로의식, 진로경로, 진로지원시스템 등의 요인들을 KEEP에서 다른 요인들로 제한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교사와 부모와의 통계적 검증을 시도하였으나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제시하지 못했다.

II. 청소년의 진로의식 및 진로경로

1. 선행연구 분석

가. 진로의식

의식이란 외부의 현상이나 경험속에서 지각, 사고, 느낌 등을 표상화한 것이며 인식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의식은 지각, 사고, 느낌을 통하여 정확한 표상의 체계를 갖고 있으며, 가치를 형성하는 인지적인 면과 다양한 신념체계에 의하여 개인적 목표에 반응하여 나타내는 행동적인 표상인 태도를 가지는 한편 태도, 가치, 신념에 의해 복합적으로 표상된 언어적 표현으로서 의견으로 나타낸다.

진로의식(career consciousness)과 관련하여 직업의식(vocational consciousness)과 근로

의식(labor consciousness)이 있다. 진로의식은 일생동안 추구하거나 추구해온 일에 대한 개인의 지각, 태도, 의견, 가치를 의미한다. 직업의식은 지각, 사고, 느낌을 통하여 주어진 시점에서의 일에 대하여 정확한 표상의 신념체계를 갖고 가치를 형성하는 한편, 다양한 신념체계에 의하여 행동적인 표상인 태도를 가지며, 태도, 가치, 신념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표상하는 한편, 언어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일에 대하여 빈번히 반복되는 행동인 습관을 갖는 것이다. 진로의식은 근로의식은 근로에 대한 개인의 지각, 태도, 의견, 가치를 의미한다(김병숙 외, 1998).

베츠(1987)는 진로와 관련된 주제들을 ① 개인적 차이의 변인들(적성, 능력, 흥미, 욕구, 가치), ② 진로 과정 변인(진로의사결정, 진로성숙, 성인 진로적응), ③ 진로 관련 인지(진로 신념, 자기효능감) 등으로 조직화하였다. 진로의식은 진로관련 인지로서 진로신념, 자기효능감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적 신념, 가치, 사고가 진로의식을 형성한다.

크롬볼츠와 쿤은 내담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로상담가와 교육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법, 흥미, 신념, 가치, 일 습관, 그리고 만족할만한 삶을 창출하기 위한 개인의 질 등에 관하여 학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 제시한다.

개인적 작용신념은 한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있는지, 또한 능력이 되는 지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다. 개인적 작용신념은 원하는 결과 즉, 어떤 목표와 기대되는 결과 즉, 목표를 추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 간의 비교를 포함한다(M. Ford, 1992). 인지적 사고가 진로 영역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피력하고 특히, 진로문제해결이나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인지적 사고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

우리나라 학부모는 자녀보다 인문숭상의 학력주의 그리고 외적 가치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진로관념을 자녀들에게 지도하거나 압력으로 작용하여 청소년기에서 고민사항 중 ‘진로문제’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정원식, 1985; 청소년연구원, 1991; MBC, 1991; 대화의 광장, 1992; 김병숙, 1994; 김영순, 199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또한 학교와 선생님은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선택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Santrock, 1993). 또래 집단은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친구들과의 어울림은 직접적으로 직업가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 또래 집단은 학문지향이라든지 아니면 일탈지향 같은 강력한 하위 문화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Clark, 1962; Coleman, 1961). 한 연구는 비록 가난한 가정 출신일지라도 청소년이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친구와 부모를 가졌을 때 그들은 높은 지위의 직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Simpson, 1962).

우리나라 10대와 20대의 청소년이 직업에 대한 내재적가치 영역에서 적극적인 응답을 보인 항목은 ‘일 자체가 좋아서’(10대; 2.76, 20대; 2.77, M=2.66)와 ‘자아실현을 위해서’(10대; 2.93, 20대; 2.95, M=2.83),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10대; 2.92, 20대; 2.75, M=2.66)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자체에 비중을 두는 내재적 가치를 다른 연령층보다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의 직업의식은 자신의 희망과 꿈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형

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김병숙 외, 1998).

임은미, 장선숙(2002)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보탐색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진로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자기평가, 정보탐색, 목표설정, 미래계획 등에서 의미있는 향상을 보였으며, 배은경(2003)도 여고생을 대상으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검증하였다. 그러므로 진로상담과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의 진로의식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나. 진로경로

진로경로는 진로달발과정에서 미미한 획기적인 사건, 생애사건, 단계 등에서 진로행동이 나아가는 방향과 욕망이 표현되기도 하나 진로선택과 개인의 일하는 삶을 결정하는 행동의 이유와 방법을 진로경로로 특정 짓는다. 그러므로 진로경로는 진로발달 단계에서 진로행동을 나아가게 하는 이유와 방법 등이다.

사람들은 수퍼(1980)의 진로발달 단계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예측가능한 단계를 통해 자신들의 진로를 형성하고 유지하면서 40년을 일하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는 없게 되었다. 진로를 제공하는 거대조직이 사라짐에 따라 단일 조직 내에서 직업적 진로경로(vocational career path)의 개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로경로를 추구에는 가정, 사회 등의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김병숙 역, 2005).

청소년기의 일에 대한 경험은 그들의 장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노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직업세계의 현실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일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어떻게 일자리를 구하고 그것을 유지하며, 어떻게 돈과 시간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결국, 이런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졸업 후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학생 취업은 취업률, 소득 등으로 측정된 노동시장 성취수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Carr, Wright & Brody, 1996).

실업계고등학생이 현재 겪고 있는 진로고민은 ‘나의 꿈(직업)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다’ 193명(33.5%), ‘진학과 취업 중 어느 것을 해야할지 고민이다’ 129명(22.4%),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117명(20.3%), ‘하고 싶은 것이 많아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할지 모르겠다’ 112명(19.4%), ‘꿈(직업)에 대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23명(4.0%) 등으로 조사되었다. 학년에 따라서 ‘나의 꿈(직업)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1학년 29.0%, 2학년 33.5%, 3학년 38.5% 등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 준비에 대한 고민이 많았으며, 진학과 취업에 대한 선택의 고민은 1학년 29.0%, 2학년 16.8%, 3학년 19.5%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응답비율도 1학년 16.3%, 2학년 21.3%, 3학년 24% 등으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적성에 대한 진로불안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아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은 1학년 23.1%, 2학년 21.3%, 3학년 14.0% 등으로 진로고민이 점점 감소하였으며,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장래희망에 대한 목

표가 잠정적으로 설정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손민아, 2005).

2. 진로의식 및 진로경로분석

가. 청소년의 진로의식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직업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소질과 적성’(중학생 70.9%, 일반계고등학생 63.3%, 실업계고등학생 62.7%)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높은 소득’, ‘지속적 고용’, ‘발전가능성’, ‘사회봉사’ 순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서도 높은 소득과 고용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II-1> 직업선택시 중요도

(단위: 명수(%))

구분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계	996(49.8)	1,004(50.2)	1,117(33.8)	883(44.2)	1,105(55.3)	895(44.8)
소질/적성	675(60.8)	744(74.1)	675(60.4)	590(66.8)	669(60.5)	580(64.8)
높은 소득	112(11.2)	87(8.7)	193(17.3)	92(10.4)	196(17.7)	136(15.2)
지속적 고용	49(4.9)	52(5.2)	106(9.5)	89(10.12)	81(7.3)	68(7.6)
발전가능성	50(5.0)	41(4.1)	45(4.0)	59(6.7)	73(6.6)	62(6.9)
사회봉사	33(3.3)	17(1.7)	18(1.6)	6(0.7)	22(2.0)	6(0.7)
여가시간	32(3.2)	20(2.0)	27(2.4)	19(2.2)	24(2.2)	10(1.1)
쾌적한 환경	17(1.7)	14(1.4)	13(1.2)	9(1.0)	18(1.6)	20(2.2)
창의성	18(1.8)	17(1.7)	23(2.3)	10(1.1)	16(1.4)	6(0.7)
사회적 평판	10(1.0)	12(1.2)	14(1.3)	9(1.0)	6(0.5)	7(0.8)
	$\chi^2=15.833^*$		$\chi^2=34.279^{***}$		$\chi^2=16.988^*$	

*p<.05, ***p<.001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생활에서 성공요인에 대한 의식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과 관련된 ‘노력’, ‘대인관계’, ‘능력’ 등에 대하여 중학교 1,676명 83.8%, 일반계고등학교 1,712명 85.6%, 실업계고등학교 1,585명 79.3% 등을 나타내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성공요인임을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은 ‘대인관계’를 더 높게 분포를 보인 반면, ‘능력’은 여학생보다 더 낮은 분포를 보여 남녀별 시각의 차이를 알 수 있다.

<표 II-2> 직업생활성공요인

(단위: 명수(%))

구분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계	996(49.8)	1,004(50.2)	1,117(55.9)	883(44.2)	1,105(55.3)	895(44.8)
자본	130(13.1)	100(10.0)	132(11.8)	73(8.3)	199(18.0)	143(16.0)
노력	557(55.9)	556(55.4)	597(53.4)	507(57.4)	529(47.9)	466(52.1)
대인관계	79(7.9)	67(6.7)	152(13.6)	71(8.0)	168(15.2)	117(13.1)
능력	186(18.7)	231(23.0)	185(16.6)	200(22.7)	160(14.5)	145(16.2)
좋은 성품	17(1.7)	23(2.3)	21(1.9)	20(2.3)	25(2.3)	13(1.5)
운	8(0.8)	3(0.3)	2(0.2)	-	2(0.2)	1(0.1)
가정배경	7(0.7)	8(0.8)	13(1.2)	6(0.7)	13(1.2)	8(0.9)
학벌	12(1.2)	16(1.6)	15(1.3)	6(0.7)	9(0.8)	2(0.2)
	$\chi^2=13.535$		$\chi^2=35.897***$		$\chi^2=10.860$	

***p<.001

직업생활 성공요인은 인문계고등학교 집단에서 남녀별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표 II-3> 성별 직업생활성공요인

구분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63(8.15)	1837(91.85)	128(6.4)	1872(93.6)	321(16.05)	1679(83.95)
M	2.61	2.57	2.32	2.58	2.42	2.42
SD	1.29	1.28	.94	1.2294	1.19	1.18
t	.36		-2.33*		-.02	

*p<.05

고등학교 진학사유를 보면 인문계고등학교는 단연 ‘대학진학’ 73.4%(남자 70.9%, 여자 76.4%)로서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실업계고등학교는 ‘성적’ 42.7%(남자 43.2%, 여자 42.1%)으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진학’ 8.6%를 보여 실업계고등학교 50%이상이 대학진학에 우선적인 순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곤(2005)에서 조사된 실업계고등학교 진학동기에 대하여 ‘중학교 성적이 낮아서’ 67.2%, ‘적성에 맞아서’ 4.5%, ‘부모님의 권유’ 6.3%, ‘친구의 권유’ 2.1% 등으로 대부분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은 무시한 채, 성적이 낮기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와 동일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취업선호가 17.2%를 보였다.

<표 II-4> 진학선택사유

(단위: 명수(%))

구분	일반계 고등학교		구분	실업계고등학교	
	남	여		남	여
계	1,117(55.9)	883(44.2)	계	1,105(55.3)	895(44.8)
대학진학	792(70.9)	675(76.4)	대학진학	187(16.9)	153(17.1)
부모님 권유	129(11.5)	66(7.5)	부모님 권유	25(2.3)	25(2.8)
선생님 권유	33(3.0)	18(2.0)	선생님 권유	59(5.3)	32(3.6)
특별한이유없음	129(11.5)	104(11.8)	취업선호	169(15.3)	175(19.6)
기타	34(3.0)	62(2.3)	스스로	169(15.3)	101(11.3)
			가정형편	19(1.7)	31(3.5)
			성적	477(43.2)	377(42.1)
			잘모름	-	1(0.1)
	$\chi^2=13.212^*$			$\chi^2=22.428^{**}$	

*p<.05, **p<.01

우리나라 청소년은 진로결정을 하였다고 판단하는 중학생은 91.3%, 일반계고등학생은 99.0%, 실업계고등학생 96.0%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전의 연구에서 지적된 진로결정의 분포율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미결정이유에 대하여 '적성이나 흥미를 모른다'에 가장 높게 반응하여 자신에 대한 정체성 탐구 즉 '나에 대한 탐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표 II-5> 진로미결정 사유

(단위: 명수(%))

구분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계	996(49.8)	1,004(50.2)	1,117(55.9)	883(44.2)	1,105(55.3)	895(44.8)
적성흥미 모름	40(4.0)	39(3.9)	7(0.6)	-	9(0.8)	15(1.7)
정보부족	-	-	2(0.2)	1(0.1)	9(0.8)	2(0.2)
의견차	7(0.7)	17(1.7)	1(0.1)	1(0.1)	6(0.5)	1(0.1)
하고싶은 것 많음	20(2.0)	16(1.6)	2(0.1)	1(0.1)	8(0.7)	12(1.3)
관심없음	9(0.9)	3(0.3)	2(0.1)	-	9(0.8)	-
기타	14(1.4)	10(1.0)	3(0.3)	1(0.1)	7(0.6)	2(0.1)
해당 무	906(91.0)	919(91.5)	1,100(98.5)	879(99.5)	1,057(95.7)	863(96.4)
	$\chi^2=8.351$		$\chi^2=8.079$		$\chi^2=19.875^{**}$	

**p<.01

직업을 갖게 될 가능성에 대하여 중학생은 '높다' 14.6%, '낮다' 10.7%를 보였으나, 일반계 고등학생은 '높다' 23.7%, '낮다' 11.0%, 실업계고등학생 '높다' 17.6%, '낮다' 10.7% 등으로 일반계고등학생이 직업에 대한 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미래에 대하여 구체성이 고등학생보다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6> 직업을 갖게 될 가능성

(단위: 명수(%))

구분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계	996(49.8)	1,004(50.2)	1,117(55.9)	883(44.2)	1,105(55.3)	895(44.8)
매우낮다	9(0.9)	5(5.0)	7(0.6)	9(1.0)	11(1.0)	6(0.7)
낮다	107(10.7)	93(5.4)	126(11.3)	79(8.9)	105(9.5)	92(10.3)
보통	342(34.3)	415(17.1)	405(36.3)	343(38.8)	313(28.3)	332(37.1)
높다	112(11.2)	134(5.6)	190(17.0)	195(22.1)	153(13.8)	135(15.1)
매우높다	13(1.3)	22(7.0)	51(4.6)	38(4.3)	41(3.7)	23(2.6)
해당 무	413(41.5)	335(33.4)	337(30.3)	219(24.8)	482(43.6)	307(34.3)
	$\chi^2=21.546^{**}$		$\chi^2=16.399^{**}$		$\chi^2=26.129^{***}$	

p<.01, *p<.001

나. 청소년의 진로경로

우리나라 청소년이 진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사람은 부모로 나타났다. <표 II-7>에 의하면, 부모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중학생 49.6%, 일반계 고등학생 38.4%, 실업계 고등학생 39.0% 등을 보여 부모가 진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단위: 명수(%))

구분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계	996(49.8)	1,004(50.2)	1,117(55.9)	883(44.2)	1,105(55.3)	895(44.8)
아버지	295(29.3)	57(15.6)	249(22.3)	93(10.5)	249(22.5)	111(12.4)
어머니	291(29.5)	349(34.8)	175(15.7)	250(28.3)	204(18.5)	215(24.0)
학교선생님	60(6.0)	68(6.8)	122(10.9)	81(9.2)	187(16.9)	106(11.8)
학원선생님	20(2.0)	25(2.5)	40(3.6)	48(5.4)	21(1.9)	35(3.9)
형제	34(3.4)	51(5.1)	38(3.4)	51(5.8)	62(5.6)	60(6.7)
친척	12(1.2)	25(2.5)	26(2.3)	16(1.8)	23(2.1)	22(2.5)
친구	75(7.5)	126(12.5)	84(7.5)	66(7.5)	125(11.3)	121(13.5)
선배	10(1.0)	9(0.9)	14(1.3)	20(2.3)	31(2.8)	16(1.8)
위인	17(1.7)	17(1.7)	50(4.5)	24(2.7)	9(0.8)	7(0.8)
종교인	3(0.3)	5(0.5)	10(0.9)	3(0.3)	3(0.3)	4(0.4)
없음	176(17.7)	172(17.1)	308(27.6)	231(26.2)	191(17.3)	198(22.1)
잘모름	-	-	1(0.1)	-		
	$\chi^2=69.368^{***}$		$\chi^2=99.792^{***}$		$\chi^2=63.154^{***}$	

이러한 결과는 김병숙 외(1998)의 한국인의 직업의식조사에서도 부모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여학생은 어머니(중학생 34.8%, 일반계 고등학생 28.3%, 실업계 고등학생 24.0%)에 높게 응답한 반면, 고등학교 남학생은 아버지(일반계 고

등학생 22.3%, 실업계 고등학생 22.5%)에게서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어머니에게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 다음은 ‘학교선생님’, ‘친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학무모를 위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 것이므로 학무모를 위한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이 진로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수집하는 것은 ‘인터넷’(중학생 18.7%, 일반계 고등학생 28.3%, 실업계 고등학생 30.5%)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 다음은 부모(중학생 29.0%, 일반계고등학생 8.6%, 실업계고등학생 10.8%)에게서 가장 많이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 II-7>과 연관이 있다. ‘학교나 학원 선생님’(중학생 18.1%, 일반계고등학생 8.6%, 실업계고등학생 10.8%), ‘친구’(중학생 18.1%, 일반계고등학생 8.6%, 실업계고등학생 10.8%) 등을 나타내어 교사와 또래집단의 영향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8> 진로에 관한 정보원

(단위: 명수(%))

구분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계	996(49.8)	1,004(50.2)	1,117(55.9)	883(44.2)	1,105(55.3)	895(44.8)
아버지	178(17.9)	86(8.6)	65(5.8)	26(2.9)	73(6.6)	25(2.8)
어머니	147(14.8)	168(16.7)	37(3.3)	43(4.9)	68(6.2)	50(5.6)
학교선생님	123(12.3)	94(9.4)	164(14.7)	93(10.5)	259(23.4)	180(20.1)
학원선생님	70(7.0)	75(7.5)	64(5.7)	72(8.2)	42(3.8)	47(2.3)
형제	67(6.7)	67(6.7)	53(4.7)	24(2.7)	66(6.0)	56(6.3)
친척	30(3.0)	24(19.4)	22(2.0)	13(1.5)	33(3.0)	19(2.1)
친구	154(15.5)	195(2.6)	106(9.5)	80(9.1)	164(14.8)	162(18.1)
선배	19(1.9)	26(2.6)	25(2.2)	14(1.6)	63(5.7)	20(2.2)
취업유학진학 박람회	-	1(0.1)	2(0.1)	-	-	5(0.6)
전문기관	11(1.1)	12(1.2)	24(2.1)	23(2.6)	5(0.5)	6(0.7)
인터넷	151(15.2)	223(22.2)	516(16.2)	451(51.1)	312(28.2)	298(33.3)
매체	41(4.1)	32(3.2)	23(2.1)	24(2.7)	14(1.3)	14(1.6)
책	5(0.5)	1(0.1)	16(1.4)	20(2.3)	6(0.5)	13(1.5)
	$\chi^2=62.730^{***}$		$\chi^2=37.211^{***}$		$\chi^2=54.170^{***}$	

우리나라 청소년이 희망인물을 아는 경로는 매스컴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생 18.9%, 일반계고등학생 18.2%, 실업계고등학생 14.2% 등 모두 공통된 현상들이다. 이제 EBS 및 개인에서 운영되는 직업방송이 의미있게 부각되는 것이나 특정방송에 의존하기 보다는 대중매체에서 청소년의 직업관련 정보 제공을 보다 합리적으로 우수한 정보제공이 촉구된다 하겠다.

<표 II-9> 희망인물 알게 된 경로

(단위: 명수(%))

구분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계	996(49.8)	1,004(50.2)	1,117(55.9)	883(44.2)	1,105(55.3)	895(44.8)
책	64(6.4)	54(5.4)	59(5.3)	39(4.4)	22(2.0)	23(2.3)
언론매체	169(17.5)	208(20.7)	192(17.2)	172(19.5)	143(12.9)	141(15.8)
가족/친인척	28(2.8)	38(3.8)	66(5.9)	38(4.3)	53(4.8)	21(2.3)
아는 사람	42(4.2)	92(9.2)	75(6.7)	88(10.0)	66(6.0)	48(5.3)
기타	57(5.7)	72(7.2)	82(7.3)	77(8.7)	80(7.2)	57(6.4)
해당 무	636(63.9)	540(53.8)	643(57.6)	469(53.1)	741(67.1)	605(67.6)
	$\chi^2=34.603***$		$\chi^2=1.953*$		$\chi^2=12.406*$	

청소년이 진로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함이 지적되었으나 적성에 대하여 알게된 경로를 보면 ‘스스로’ 중학생 27.2%, 일반계고등학생 47.8%, 실업계고등학생 37.4% 등으로 나타나 스스로 자기탐구를 할 수 있는 청소년의 분포도를 알 수 있다. 청소년은 자기탐구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성이나 흥미검사를 이용한 것의 분포도는 중학생 16.4%, 고등학생 11.7%, 8.2% 등의 분포를 보였다(<표 II-10> 참조).

<표 II-10> 적성을 알게 된 경로

(단위: 명수(%))

구분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계	996(49.8)	1,004(50.2)	1,117(55.9)	883(44.2)	1,105(55.3)	895(44.8)
적성흥미 검사	169(17.0)	159(15.8)	136(12.2)	98(11.1)	81(7.3)	82(9.2)
스스로	283(28.4)	261(26.0)	535(47.9)	420(47.6)	423(38.3)	324(36.3)
부모님	19(1.9)	28(2.8)	13(1.2)	14(1.6)	19(1.7)	10(1.1)
주변	70(7.0)	111(11.1)	77(6.9)	79(8.9)	90(8.1)	81(9.1)
학교선생님	9(0.9)	14(1.4)	15(1.3)	14(1.6)	29(2.6)	12(1.3)
매체	10(1.0)	9(0.9)	5(0.4)	7(0.8)	71(6.4)	8(0.9)
해당 무	436(43.8)	422(42.0)	336(57.2)	251(28.4)	456(41.3)	379(42.2)
	$\chi^2=13.542*$		$\chi^2=5.455$		$\chi^2=8.851$	

이상에서와 같이 청소년이 영향을 받는 인물은 부모, 교사, 또래집단 등이며, 희망인물을 알게된 방법은 매스컴, 진로정보 수집은 인터넷 등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이 정보수집이 용이한 형태로 가공된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3. 진로지원 시스템에 대한 평가

청소년에게 진로지원 시스템은 학교 교과시간이나 상담을 통하여 제공된다. 진로와 직업 교육이수만족도를 보면, 해당되지 않은 집단은 중학생 62.1%, 일반계고등학생 53.2%, 실업계고등학생 65.4% 등을 보여 진로지원시스템 운영에 대한 제고가 요구되고 그중 실업계고등학교가 가장 높아 더욱 진로지원시스템 운영에 검토가 요구된다.

<표 II-11> 진로와 직업교과이수 만족도

(단위: 명수(%))

구분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계	996(49.8)	1,004(50.2)	1,117(55.9)	883(44.2)	1,105(55.3)	895(44.8)
전혀 만족못함	18(1.8)	15(1.5)	94(8.4)	59(6.7)	16(1.4)	15(1.7)
만족못함	72(7.2)	89(8.9)	175(15.7)	117(13.3)	48(4.3)	67(7.5)
보통	205(20.6)	215(21.4)	222(19.9)	157(17.8)	204(18.5)	194(21.7)
만족	61(6.11)	65(6.5)	57(5.1)	42(4.8)	77(5.5)	55(6.1)
매우만족	10(1.0)	8(0.8)	7(0.6)	5(0.6)	10(0.6)	6(0.7)
해당 무	630(63.3)	612(61.0)	562(50.3)	503(57.0)	750(67.9)	558(62.3)
	$\chi^2=2.884$		$\chi^2=9.299$		$\chi^2=15.118^*$	

*p<.05

진로와 직업교육이수 만족도에 대하여는 중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보였다(<표 II-12> 참조).

<표 II-12> 진로와 직업교육이수만족도

구분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63(8.15)	1837(91.85)	128(6.4)	1872(93.6)	321(16.05)	1679(83.95)
M	-3.76	-3.32	-.99	-1.53	-1.44	-2.38
SD	4.03	3.32	3.94	3.78	4.05	-3.76
t	5.62***		1.55		.40***	

***p<.001

진로강연 만족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만족도(중학생 7.4%, 일반계 고등학생 12.9%, 실업계 고등학생 15.5%)가 높았다.

<표 II-13> 진로강연 만족도

(단위: 명수(%))

구분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계	996(49.8)	1,004(50.2)	1,117(55.9)	883(44.2)	1,105(55.3)	895(44.8)
전혀 만족못함	9(0.9)	5(0.5)	17(1.5)	6(0.7)	9(0.8)	4(0.4)
만족못함	23(2.3)	27(2.7)	56(5.0)	4(2.3)	67(6.1)	49(5.5)
보통	102(10.2)	127(12.6)	204(18.3)	168(19.0)	237(21.4)	194(22.9)
만족	61(6.1)	72(7.2)	125(11.2)	105(11.9)	77(9.8)	205(10.2)
매우만족	9(0.9)	6(0.6)	19(1.7)	8(0.9)	22(2.0)	6(0.7)
해당 무	792(79.5)	767(76.4)	696(62.3)	549(62.2)	662(59.9)	540(60.3)
	$\chi^2=6.071$		$\chi^2=5.810$		$\chi^2=8.049$	

진로관련 강연만족도는 중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모두에서 남녀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만족하지 못한 면에서 더욱 차이를 나타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14> 진로관련강연만족도

구분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63(8.15)	1837(91.85)	128(6.4)	1872(93.6)	321(16.05)	1679(83.95)
M	-1.76	-3.32	-.35	-2.01	-.54	-1.98
SD	4.03	3.32		3.94.235		3.94
t	5.62***		4.58***		5.92***	

***p<.001

진로관련 검사만족도를 보면 불만족보다 만족(중학생 25.3%, 일반계 고등학생 20.5%, 실업계 고등학생 15.7%)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만족도는 다른 진로지원시스템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표 II-15> 진로관련 검사만족도

(단위: 명수(%))

구분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계	996(49.8)	1,004(50.2)	1,117(55.9)	883(44.2)	1,105(55.3)	895(44.8)
전혀 만족못함	21(2.1)	20(2.0)	41(2.1)	21(1.1)	29(2.6)	16(1.8)
만족못함	73(7.3)	134(13.3)	174(8.7)	149(7.5)	119(10.8)	100(11.2)
보통	367(36.8)	407(40.5)	466(23.3)	413(20.7)	433(39.2)	407(45.5)
만족	208(20.9)	228(22.7)	213(10.7)	161(8.1)	130(11.8)	145(16.2)
매우만족	40(4.0)	30(3.0)	20(1.0)	16(0.8)	23(2.1)	16(1.8)
잘 모름	-	1(0.1)	-	-	2(0.2)	-
해당 무	287(30.7)	184(18.3)	203(10.2)	123(6.2)	369(33.4)	211(23.6)
	$\chi^2=47.133***$		$\chi^2=11.670$		$\chi^2=31.623***$	

진로관련 검사만족도에 대하여 중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에서 남녀별 차이를 보였다.

<표 II-16> 진로관련 검사만족도 차이검증

구분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63(8.15)	1837(91.85)	128(6.4)	1872(93.6)	321(16.05)	1679(83.95)
M	1.97	1.19	1.73	1.69	1.11	.67
SD	3.21	3.56	3.24	3.03	3.55	3.72
t	2.69**		.14		2.21*	

*p<.05, **p<.01

청소년의 직장체험경험을 보면, 중학생 8.1%, 일반계 고등학생 6.4%, 실업계 고등학생 16.1%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실업계 고등학생이 중학생의 2배, 일반계 고등학생의 2.5배 수준에 이른다. 직업체험 경험만족도는 불만족보다 만족도(중학생 25.3%, 일반계 고등학생 20.5%, 실업계 고등학생 15.7%)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17> 직업체험경험만족도

(단위: 명수(%))

구분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계	996(49.8)	1,004(50.2)	1,117(55.9)	883(44.2)	1,105(55.3)	895(44.8)
전혀 만족못함	4(0.4)	2(0.4)	3(0.3)	2(0.2)	7(0.6)	3(0.3)
만족못함	11(1.1)	8(0.8)	9(0.8)	7(0.8)	23(2.1)	14(1.6)
보통	35(3.5)	32(3.2)	41(3.7)	18(2.0)	92(8.3)	70(7.8)
만족	26(2.6)	29(2.9)	26(2.3)	16(1.8)	52(4.7)	33(3.7)
매우만족	10(1.0)	4(0.4)	5(0.4)	1(0.1)	17(1.5)	10(1.1)
해당 무	910(91.4)	927(92.3)	1,033(92.5)	839(95.0)	914(82.7)	765(85.5)
	$\chi^2=3.468$		$\chi^2=7.290$		$\chi^2=4.056$	

진로상담 경험을 보면, 중학생 388명 19.4%, 일반계 고등학생 1,090명 54.5%, 실업계 고등학생 663명 33.1%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일반계 고등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계 고등학생이 진학상담을 포함한 진로상담이 높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여전히 진로상담을 경험하지 못한 집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상담 경험에 대하여 만족하는 집단(중학생 32.7%, 일반계 고등학생 14.1%, 실업계 고등학생 12.1%)이 더 많다.

<표 II-18> 진로상담경험 만족도

(단위: 명수(%))

구분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계	996(49.8)	1,004(50.2)	1,117(55.9)	883(44.2)	1,105(55.3)	895(44.8)
전혀 만족못함	6(0.6)	2(0.9)	14(1.3)	25(2.8)	17(1.5)	13(1.5)
만족못함	34(3.4)	8(4.2)	88(7.9)	89(10.1)	60(5.4)	63(7.0)
보통	177(17.8)	32(21.1)	304(27.2)	289(32.7)	291(26.3)	287(32.1)
만족	80(8.0)	29(8.1)	137(12.3)	118(13.4)	129(11.7)	102(11.4)
매우만족	14(1.4)	4(1.1)	15(1.3)	11(1.2)	15(1.4)	7(0.8)
해당 무	685(68.8)	927(64.8)	559(50.0)	351(39.8)	914(53.7)	423(47.3)
	$\chi^2=3.468$		$\chi^2=7.290$		$\chi^2=4.056$	

진로상담 경험 만족도는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등 모두에서 남녀별 차이를 보였다.

<표 II-18> 진로상담경험 만족도 남녀 차이

구분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63(8.15)	1837(91.85)	128(6.4)	1872(93.6)	321(16.05)	1679(83.95)
M	-.66	-2.27	.71	-.70	0.01	-1.21
SD	4.11	3.86	3.85	4.04	4.00	4.06
t	5.04***		3.83***		4.98***	

***p<.001

이상에서와 같이 진로지원시스템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진로지원시스템 혜택이 일반화 되지 못하였으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별 차이를 보여 진로지원시스템의 확대와 남녀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논문은 중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남녀별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은 건전한 진로의식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직업선택시의 중요도, 직업생활 성공요인 등에 대하여 소질, 능력, 적성, 노력 등을 우선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교에서의 진로결정은 미래지향적인 진로결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학교에서 일반계와 실업계로서 일차적 진로결정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때에 진로결정은 학교성적에 의한 강제적 진로결정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들의 직업효능감은 학교성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직업에 대한 효능감은 일반계 고등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학업성적에 의한 강제적 진로결정이 높게 나타난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낮게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에게 진로에 대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물은 부모이다.

청소년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물은 부모이며, 남학생은 아버지, 여학생은 어머니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주로 인터넷, 매스컴, 부모에게서 진로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부모로 나타나 부모의 역할이 더욱 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스컴에서 희망인물을 제공받아 건전한 매스컴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여섯째, 청소년은 자기탐구에 대한 노력을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자기탐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직업검사를 받는 단순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왕성한 자기탐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진로지원시스템에 참여도가 낮으며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지원시스템에 대한 참여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지원시스템의 취약성을 동시에 지적한 것이다. 진로지원시스템도 다양한 참여를 보이지 않으나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진로의식, 진로경로, 진로지원시스템의 만족도 등에서 남녀차이가 있다.

진로의식, 진로경로, 진로지원시스템에서 남녀별 차이가 검증된 것은 남녀별 지원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남녀별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되는 것이다.

2. 제언

본 고는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코저 한다.

첫째, KEEP의 결과를 진로교육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KEEP의 자료를 통하여 연구된 결과는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논제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진로교육 정책당국에서는 이러한 논제에 대한 정책을 구현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진로교육의 종합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일차적 진로분화가 일어나는 분기점인 중학교 졸업시에 학교성적이 아닌 진로경로를 구

측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종합적 평가가 요구된다.

셋째, 진로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로지원시스템은 일부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형태로서 지원형태는 단순한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진로발달 단계에 적합한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KEEP의 조사항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KEEP은 대단한 노력과 경비 그리고 시간을 요구하는 방대한 조사로서 특히 고용관련 조사항목에 대한 검토와 제고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병숙 외(1998). 진로지도 및 직업안정의 체계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병숙 외(1998).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병숙 외(1999). 직업심리학, 박문각
- 김병숙(1999). 직업상담심리학, 박문각
- 김병숙(2005). 직업심리학 핸드북, 시그마프레스
- 손민아(2005). 진로모델링프로그램의 진로 자기효능감 효과 분석, 경기대 행정대학원 직업학 석사학위 논문
-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2002).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 이은경(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임은미, 장선숙(2002). 인터넷을 활용한 진로정보탐색 프로그램이 여자중학생의 진로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교육학회지 p41-57
- Betz, N. E., & Hackett, G. (1987). Concept of agency in educational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299-308.
- Farmer, H. S. (1985). Model of career and achievement motivation for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363-390.
- Krumboltz, J. D., & Nichols, C. W. (1990). Integrating the social learning theory of decision-making.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Career counseling: Contemporary topics in vocational psychology* (pp. 159-19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2nd ed., pp. 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